A. 지금까지 줄거리

1. 구약과 히브리 성서: 자(주체) 의식과 사람다운 삶
2. 예언과 역사: 역사를 보는 눈
3. 지혜로운 삶: "살아내기"

B. 구약성서 연구를 왜 해야 하나?

1. 초대 기독교인들의 성서는 구약이었다.
2. 구약이 신약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신약이 구약의 사건(들)을 새롭게 풀이한 것이다.

C. 성서와 신앙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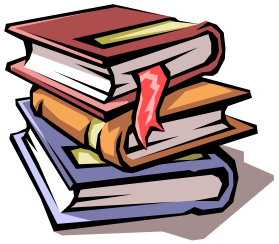
1. 성서를 통해 스스로의 신앙 생활을 점검한다. (성서가 구구절절 종교와 신앙의 교과서이며, 정답을 말하기 때문인가? 아니다. 아니다! 신앙 생활의—좋고 또 나쁜—예문들을 많이 담은 책이기 때문이다.)
2. 이와 관련해, 성서는 연구 대상이다. 그 말과 뜻을 추려내야 한다. 잘못된 신앙은 총칼보다 무섭다. Jim Wallis, "Dangerous Religion: George W. Bush's Theology of Empire," *Sojourners* (Sept.-Oct. 2003) 참조. www.sojo.net
3. 성서와 전통은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다. 그래야 오늘도 살아있는 전통/성서로써 역할은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의 처한 위치를 꿰뚫어 읽는 예언자적 눈을 지녀야 하며(마 16:1-3), 새로운 비전을 지닌 역사적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즉, 질문이 있어야 성서는 그 실존적 의의를 지닌다.
4. 문제는 어떤 하느님의 모습을 마음 속에 그리고 있느냐는 것.
   성서 ⇒ 해석학적 열쇠 ("하느님") ⇒ 우리들의 문제

D. 교훈

- ✓ 잘못된 (혹은 나쁜) 성서관, 신앙과 신학을 이기는 길은, 이와 관련된 노력을 모두 멈추고 기독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혹은 좋은) 성서관, 신앙과 신학을 세우는 일이다.
- ✓ 성서를 읽을 때, 악인(ㅆㄱㄹㄴㅁ)의 역할 속에 자신을 넣어 보자. 도전을 받는가? 부끄러운가? 여기에 참 은혜가 있다(롬 5:20; 도마복음 2절[1]).

E. 앞으로의 생활은?

1. 성경공부가 끝났으므로, 이제는 논다. 한 두어 너댓 예닐곱 달 지켜 본다.
2. 기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3. 구약공부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신약공부를 한다.
4.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구약을 통독한다.



[1] Jesus said, "Let him who seeks continue seeking until he finds. When he finds, he will become troubled. When he becomes troubled, he will be astonished, and he will rule over the All" (*The Nag Hammadi Library*).